
서 평

폴 벤느,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 이상길, 김현경 역 (새물결, 2004)

고 원

I

석사과정에서 역사이론을 전공했지만 박사과정에 진학하면서 시대사로 주제를 변경한 친구가 있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이론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지도교수의 강력한 조언이 있었다는 것이다. 역사이론에 별다른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다른 분과보다도 프랑스사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프랑스의 역사이론 저서로서 마르크 블로크(Marc Bloch)의 『역사를 위한 변명』,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의 『역사학 논고』, 아담 샤프(Adam Schaff)의 『역사와 진실』, 장 쉐노(Jean Chesneaux)의 『실천적 역사학을 위하여』 등이 번역된 바 있지만, 이 책들의 역자 가운데 역사학 전공자는 소수이며 그나마 프랑스사 전공자는 한 명도 없다. 여기서 우리는 1971년에 출간된 폴 벤느(Paul Veyne)의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Comment on écrit l'histoire, Seuil)가 2004년에야 우리말로 번역되었고, 더욱이 역사학 전공자가 아니라 사회학, 인류학 전공자에 의해 번역되었으며, 번역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학 전문학술지에 서평이 실린 적이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물론 역사학이 발달되어 있는 프랑스에서도 역사이론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역사가는 흔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 이유는 브로델이 이야기한 것처럼 “(프랑스의)역사가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대한 간명하고 형식적인 논의보다는 구체적인 역사 저술 속에서 그들의 해석과 관점을 더 잘 표출해 낼 수 있다

고 믿기 때문”이지, 도대체 역사이론이 왜 필요한지 이해 못하기 때문은 아니다.

역사가들은 누구나 자신의 ‘자생적 철학’을 가지고 있다. 20세기 초 랑케의 후예들이 역사가는 자신의 주관을 완전히 배제해 버린 공백의 상태에서 자료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 하나의 철학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방법론 학파의 절대적 객관주의 철학은 에밀 뒤르캄(Emile Durkheim)의 사회학이 등장하고 역사학의 위기가 시작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한다. 역사학의 사회적 역할과 지향에 대한 고민이 생겨났고, 이는 1929년 아날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1950년대 브로델이 『역사학과 사회과학: 장기지속』과 같은 이론적 논문들을 발표하는 것도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의 구조주의 인류학에 맞서 위기에 처한 역사학을 새롭게 전환시키려는 의도였다.

루시앙 페브르(Lucien Febvre)가 즐겨 말했듯이, “역사학은 그 시대의 지식”이다.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변화하면 역사학 또한 함께 변화할 수 밖에 없다. 자신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 속에서 역사학은 이른바 ‘위기’의 국면에 접어들게 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역사가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작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역사학의 현재 위치, 앞으로의 지향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이론은 자신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II

벤느의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 역시 68년 5월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의 급격한 변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프랑스 학계의 지배담론은 실증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프랑스의 실증주의는 50년대, 60년대 구조주의의 열풍과 함께 최고조에 달하지만, 68년 5월 혁명 이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 “역사학은 과학이 아니며 과학으로부터 대단하게 기대할 것이 없다”(p. 14)는 벤느의 자신만만한 선언은 당시 프랑스 사회의 지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역사가 과학이 아니라면, 역사란 과연 무엇인가? 벤느는 이렇게 대답한다. “역사가들은 인간이 그 주역을 맡고 있는 진실한 사건들에 관해 이야기한다. 역사란 허구가 아닌 소설”(l'histoire est un roman vrai)(p. 15)이며,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p. 21)라고 대답한다.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 사학사가인 프랑수아 도스(François Dosse)는 역사를 단지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로 치

부하는 벤즈의 주장이 경험주의에 근거하고 있으며,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사실과 사건에 매료된 20세기 초 프랑스 방법론 학파가 보여주었던 신실증주의의 재생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그렇지만 벤즈와 방법론 학파를 동일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무엇보다 벤즈의 주장은 인식론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이지만, 방법론 학파에는 인식론에 대한 고민이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역사연구에서 인식론을 철저하게 배제했다. 도스보다는 차라리 에르베 마르탱(Hervé Martin)처럼, 벤즈를 프랑스 상대주의의 한 흐름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을 것이다. 방법론 학파의 절대적 객관주의를 비판하면서 역사를 주관적인 이해로 보고자 했던 입장이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에서 시작되어 앙리 마루(Henri Marrou)로 이어지는 『역사에 대한 비판철학』(La philosophie critique de l'histoire)이었다. 1938년 아롱은 『역사철학 입문』에서 당시 역사학계의 주류이던 방법론 학파를 겨냥하여 역사적 객관성의 한계를 지적한다. 아롱에 따르면, “학문적으로 연구하기도 전에 이미 다 이루어져 있으며, 단순히 충실하게 재생산하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역사적 실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역사란 역사가의 재구성 행위라고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역사 속의 사실들을 하나로 묶는 인과성이란 객관적 사실 그 자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들을 탐구하는 역사가의 이해 속에서 나온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이란 의도성과 동기, 그리고 가치의 결합에 의해 이해 가능한 전체에 통합될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아롱을 이해한다면 벤즈의 주장 역시 이해할 수 있다. 벤즈는 “역사학은 설명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p. 14) 본래 설명이란 “하나의 사실을 그것의 원리에, 혹은 하나의 이론을 더욱 일반적인 이론과 관련시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p. 152) 그렇지만 “과학적 의미에서 역사적 설명은 존재하지 않으며”, 역사가의 입장에서 설명이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를 의미한다.(p. 153) 이해란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것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해시킨다는 것은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상대방에게 납득시키는 행위이다. 벤즈의 입장에서 역사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이해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벤즈는 역사가의 작업을 “해명하기”(expliciter)라고 이야기한다.(p. 160)

그렇지만 벤즈는 아롱을 단순히 되풀이하는 데에 멈추지 않고 “줄거리”(intrigue)의 문제설정을 도입하면서 자신의 역사이론을 보다 체계화한다. 벤즈에게 역사는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기서 벤즈가 말하는 “이야기”

는 아롱이나 마루가 말했던 역사의 재구성과 동일한 것이다. 그렇지만 폴 리코르(Paul Ricoeur)가 지적하는 것처럼 벤느는 ‘재구성’이 아닌 ‘이야기’라는 용어를 채택함으로써 역사서술의 문제를 보다 멀리 밀고 나갈 수 있었다. 벤느에게 역사적 설명이란 “이야기가 이해 가능한 줄거리로 조직되는 방식”을 뜻한다.(p. 152) 물리학은 법칙을 통해 사실들을 포섭하지만, 역사기술은 줄거리를 통해 사실들을 통합한다. 역사가가 사실들을 줄거리 속에 삽입하는 작업은 이 사실들을 이해 가능하도록 진술하는 것이며, 개별적인 사건들을 일반성 속에서 기술하는 것이다. 역사의 이해는 줄거리를 통한 서술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줄거리를 통해 개별적인 사실들은 종별적인(spécifique) 사실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의 한 개인은 역사가에 의해 하나의 줄거리를 부여받을 때 비로소 역사 속의 인물이 될 수 있다. 이 인물의 어떤 특성을 주요하게 서술할 것인가는 줄거리에 달려있으며, 어떤 줄거리를 부여받는가에 따라 이 인물의 역사적 위치가 결정된다. 따라서 역사가의 작업이란 특정한 줄거리를 통해 개별적인 사실들을 해명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벤느의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레 막스 베버(Max Weber)에까지 이르게 된다. 벤느는 “우리 시대의 가장 모범적인 역사서는 막스 베버의 책들”이라고 말한다.(p. 448) 그에게 베버는 단순히 사회학자가 아니다. “이해로서의 사회학이자, 법칙을 제시하려 하지 않는 베버의 저작은 실상 역사학적이다”.(p. 448) 베버는 19세기 신칸트주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인물이었다. 신칸트주의의 전통에서 베버는 역사적 인과성이 객관적 실재에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이해의 범주에서 해명하려 노력했다. 그렇지만, 그의 선배들인 딜타이나 빈델발트가 이해를 직접적 경험의 직관적 행위로 본 반면 베버는 그것을 고도의 합리화 과정으로 생각했다. 벤느가 말하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을 특정 줄거리 속에서 이해하고 또 이해시킨다는 것은 바로 베버적 의미에서 고도의 합리화 과정을 뜻한다. 따라서 벤느에게 역사학의 확장은 체험된 세계를 합리화할 수 있는 개념들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가능해진다.(p. 340~342) 이러한 관점에서 그가 생각하는 역사서술의 모델은 베버의 저작들인 것이다.

III

그렇지만, 벤즈의 논의는 여러 면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그의 저서를 관통하고 있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문제 삼을 수 있다. 벤즈는 아롱의 역사인식론을 계승하면서 그가 제기했던 방법론적 개인주의까지도 함께 물려받고 있다. 즉 그의 논의에는 사회, 역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개인이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회적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이 존재할 수 있을까?

또 하나의 문제는 벤즈의 기본 인식틀인 사건 중심의 역사와 그가 도입하는 줄거리의 개념 사이에 틈새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의 기본 구도에는 구조의 역사는 줄거리가 없으며, 사건 중심의 역사만이 줄거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렇지만 리콕르가 지적하는 것처럼 벤즈의 주장이 완벽해지려면 줄거리의 개념은 사건 중심의 역사에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구조의 역사에도 마찬가지로 줄거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리콕르는 『시간과 이야기』에서 구조의 역사를 지향하는 브로텔의 저서 역시 줄거리의 구성을 통한 서술임을 보여주고 있다. 줄거리는 사건 중심의 역사를 통째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구조의 역사를 통째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벤즈가 역사연구를 단순히 “호기심”이라는 목적에 쓰이는 지적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역사학과 현실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끊어버린다는 것이다.(p. 40, 135~147) 줄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실들을 이해하고 해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왜 사실들을 이해하고 해명해야 하는가? 벤즈가 주장하듯이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위한 것이라면, 따라서 사실들의 이해가 역사가가 속해있는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이러한 역사학은 과거 사실의 객관적 실체 확인만을 강조했던 20세기 초 실증주의 역사학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날의 창시자 페브르와 블로크가 방법론적 역사학이 표방했던 순수한 실증주의를 비판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낡은 역사학적 전통이 역사학을 현재와 격리시키고 과거에 묶어버림으로써 역사연구의 역할과 가능성을 지나치게 축소시켜 버렸기 때문이었다. 이에 맞서 아날은 역사가가 속해있는 현재 시간과 역사연구의 밀접한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역사학의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었고, 과거 사실의 인식 그 자체에

만 매진하던 역사학의 낡은 전통을 넘어서 수 있었다. 하지만 벤스는 아날 선배들의 문제의식을 부정하고 있다. 결국 벤스는 사건 중심의 역사에 줄거리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실증주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지만, 역사연구와 현실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역사학이 다시 과거의 낡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벤스는 역사와 과학, 설명과 이해를 명백히 분리하고 더 나아가 대립시킴으로써 주관성과 객관성을 대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객관이 배제되어버린 주관만으로 벤스가 강조하는 ‘해명’이 가능할까? 페브르나 브로델 같은 아날의 선배들은 이 점에서 벤스보다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에게 설명과 이해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며 객관과 주관도 대립되는 것이 아니었다. 객관과 주관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겹쳐지는 것이다. 주관은 객관을 향한 뱃사공의 역할을 담당하며 ‘역사의 진실’이란 이러한 여정의 끝에 생겨날 것이다.

IV

68년 5월 이후 구조주의의 몰락은 현실화되었고, 새롭게 전개되는 프랑스의 지적 흐름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마오주의로 상징되는 인민주의의 대두이다. 그리고 다른 한 갈래는 그간 실증주의에 억압받아왔던 주관주의의 복권이다. 마오주의는 문화혁명의 실패와 함께 가라앉지만, 주관주의는 해석학으로 발전하여 80년대 프랑스의 지적 흐름을 이끌 것이다. 딜타이에서 베버, 하이데거, 그리고 가다머에 이르는 독일 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분위기에 연유한다.

벤스의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는 70년대 주관주의의 전개를 보여주는 대표적 저서이다. 벤스의 논의는 역사연구에서 서술의 역할을 강조했고, 특히 프랑스 역사학의 전통에서는 최초로 줄거리의 중요성을 해명하려 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방법론의 차원이 아닌 인식론의 차원에서 줄거리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후 보다 풍부한 논의가 펼쳐질 수 있는 장을 열어놓았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 벤스의 문제제기는 미국 역사가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의 『메타역사』(1973), 영국 역사가 로렌스 스톤(Lawrence Stone)의 『서사의 부활: 새로운 옛 역사에 대한 고찰』(1979)과 맞물리면서 국제적으로 확장된다. 그리고 1980년대에 이르면 리쾨르의 『시간과 이야기』,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의 『역사의 단어들』을 통해 역사서술의 논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황에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벤느의 저서는 새로운 역사학의 단초를 가져왔다거나 급격한 인식론적 단절을 예고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역사서술의 문제설정을 통해 역사학이 자신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그 내용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제공했다. 이는 그의 저서가 남긴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경희대 사학과 강사)